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 정보 인프라 구축이 '미래'

불교 현대화가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분야는 정보화(인터넷)와 영상이다. 인터넷과 영상에 담긴 불교는 일반인과 불교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담긴 불교의 모습이 세계적인 사선을 사로잡았듯이 잘 만든 영화 한편이 가진 파급력은 엄청나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 정보화의 기반은 기간망 구축 등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등 정보 변별력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을 다룰 것인지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보와 영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불교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종무원산화 · 인터넷 포교 등 정보화 분야 발전이 불교계의 새로운 화두다. 사진은 스님들이 컴퓨터교육을 받는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보화 · 인터넷**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수치화 한 결과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2002년)가 한국이 21.3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는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3000만을 넘어선 등 인터넷 사용인구가 대폭 늘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국민 평균과 정보화 취약집단의 정보격차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벌어져 정보화의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심각하다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의 '2004 정보격차 지수' 보고서도 나왔다.

불교계의 실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02년 4월 실시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종단, 조직 규모 등에 따라 정보화 격차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절반 안 되는 등 불교계의 정보사회 적응력이 그리 높지 않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기초 인프라 부재, 전문인력 부족, 텍스트 위주에서 시각화된 콘텐츠 개발 등이 불교계 정보화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은 이미 상식으로 통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과 인재양성이 필수라는 주장도 몇 년간 되풀이되고 있다.

종단협과 본사 공동주최로 실시된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찰은 조사대상 사찰 가운데 50% 뿐이었다. 사용 사찰 가운데 인터넷 사용 사찰은 74.6%, 종무원관리 프로그램 사용 사찰은 48%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중 74%가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설치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또 홈페이지를 미운영하는 이유는 인적자원부재(25%)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1월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 스님)가 발족돼 스님 및 종무원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 조계종은 지난해 7월 불교정보화사업단(단장 현성 스님)을 발족, 한국전통사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종무원산화 역시 정보인프라 구축의 밑거름이 된다. 96년 조계종이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 것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이 종무원산화를 구축했다. 종단 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종무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종무원산화를 진행시켰다.

컴퓨터·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기술력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일반 수준에 따라가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전문인력의 부족은 불교계가 적극 양성하기 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최대의 난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인터넷에 국한된 매체 편향성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자 하나의 대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불교정보의 유통 창구로 인터넷 뿐 아니라 이동통신, 디지털미디어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교콘텐츠들은 아직 많이 개발되지 못했다. 텍스트 일변도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자타카' 등 불교경전류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여는 등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문 콘텐츠와 구축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전문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불교정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불교포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 환경을 불교포교에 활용하는 지해도 발휘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을 활용한 최고의 홍보수단 '지식검색'이 마케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계의 인터넷 관계자들은 "상업용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지식검색류의 포털 서비스를 불교계에서는 포교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왜곡정보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지식검색의 불교관련 질문 답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종단 차원에서 전문지식인을 선정 등록해 불교관련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식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포교수단의 저변을 넓히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지식인이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올바른 불교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포교사가 꼭 필요하다. 인터넷 포교사는 정보매체와 기술을 운영할 능력과 불교관련 지식 및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응철 교수는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불교계에서 재원과 노력을 쏟아부어 전문양성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단이나 포교사단 등에서 불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전문가, 인터넷 포교사를 양성하고 배출된 인력이 불교계 곳곳에서 정보화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불교계의 정보화 작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동통신 · 디지털미디어로 포교망 넓혀야 인터넷 마케팅의 총아 '지식검색' 활용을

더 넓어진 공부방에서 아이들의 마음도 한뼘 더 넓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했지만 그만큼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당신, 질관 더 늘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좀이서 미안했는데 참 좋았다는 당신, 이번 아이들의 활동 열기도 마음도 더욱 더 크게 자랐으면 좋았다는 당신,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아이들의 공부방이 넓어져 참 다행입니다.

장학퀴즈로 만나, 나눔의 즐거움을 다시 배워가는 수줍은 여러분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 SK

수줍은 어린이의 마음을 끌어 모으는 뜻의 수줍(羞恥)은 장학퀴즈 출제지침을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생활 속의 관찰력을 살려라"고 밝힌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미래를 화합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길의 이음은 당신, SK가 당신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하여 생활 속의 지원정사를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우리 동행, 우리 사랑, 우리나라에 나누고 다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과 더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withheart.sktelecom.com SK Telecom

**영상** 초창기 불교영상언어는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화엄경 등 심오한 정신세계를 스크린으로 옮기다보니 흥행과는 거리가 먼 예술영화들이 주로 생산됐던 것.

최근 들어 불교소재 영화들은 진지함이라는 굴레를 성큼 벗어버렸다. 2004년 개봉한 '달마야 서울가자'는 2001년 개봉한 전편 '달마야 놀자'에 이어 불교라는 소재를 코미디에 접목,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불교라는 소재를 다루는 시기가 유행성이 생긴 것.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나 애니메이션 '오세암' 등은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장르가 다양화되면서 세계인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종단이나 사찰도 더 이상 교리의 세계만을 영상 속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불교라는 소재 자체가 주목받는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영상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영화만이 아니다. 영상채, 다비식, 연등축제, 육법공양 등 영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불교문화는 무궁무진하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단 대리는 "불교수행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중국에서 한국선을 배워갈 정도로 한국식 불교수행법이 인기라면 그것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라며 "한국문화의 총화인 불교문화를 어떻게 영상 콘텐츠로 생산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화면에 그 아름다움과 수행열정을 담아낸다면 세계진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영상산업이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에 불교영상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만한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어디서든 불교영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이 불교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

부다텔레비전 임동민 대표는 "불교영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테마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영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불교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흥행을 받고 있는 만큼 세계로 눈을 돌려 영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 '어려운 불교' 벗고 친근·유익·감동으로



위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오세암', '달마야 서울가자'의 한 장면.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쳐!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지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원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